

Issue Briefi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50203 vol.140

FTA의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발전 초석으로 삼자

연구진

이 강 진(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민 수(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15년 2월 3일 vol.140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발전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FTA의 활용도 제고, 지역경제발전 초석으로 삼자

1. 들어가며	4
2.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4
3.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경험적 분석)	5
4. FTA에 대한 인식.....	7
5. 우리나라의 국내 FTA 정책.....	8
6. FTA에 대한 전라북도가 가야 할 정책방향	9

FTA체결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은 글로벌 트렌드

- 양자간 협상을 통한 FTA 체결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는 다자간무역협정의 진전이 부진하자 소외된 국가들이 FTA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우리나라는 '14년 12월 10일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14년에만 4개국과 FTA를 타결
- 향후, FTA 협상의 지속, 체결된 협상의 발효, 그리고 발효된 FTA의 효과가 본격화 될 전망이므로 FTA는 우리나라 경제 깊숙이 파고들 것임

FTA에 대한 기업의 인식(한·중 FTA 체결 사례)

- 한·중 FTA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 결과¹⁾ 중국기업이 전북기업에 비해 한·중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
 - FTA의 영향 평가는 산업/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는 긍정적, 그렇지 않은 국가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음
 - 중국기업들은 전북기업에 비해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음

FTA 본질을 이해하여 FTA 정책 추진해야

- 정부의 FTA 정책 대부분이 피해를 보완하는 정책이며 한미 FTA 사례를 보더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미미함
 - 한미 FTA 대책으로만 25조4천억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에 7조509억원, 농업경영체등록제, 경영이양직불 등에 12조7,415억원, 단기적 피해보전을 위해 1조2,965억원)이나 FTA 정책 대부분이 피해를 보완하는 정책이며 한미 FTA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FTA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양국의 경제시스템 효율화에 있음
 - FTA의 근본 목적은 양국간 수출입 증대보다는 상호국가의 비관세장벽의 완화,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 증진에 있어야 하나 우리는 FTA를 상품교역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FTA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함
 - FTA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되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전라북도 FTA 정책방향 및 대응 과제

- FTA의 활용과 전북경제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FTA 정책 추진 필요
 - FTA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세적인 대책수립에서 FTA의 활용으로 정책기조 변화 필요
 - FTA의 적극적 활용 및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FTA 대응한 주요정책의 기초가 산업분야와 농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되어야 함
- FTA의 직접보상과 경제의 효율화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 추진
 - FTA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중소농가 보상을 위해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과, 협정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대책을 통합하여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직접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에는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맞춤형 농축산업 구조개선
 -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실시
 - 축산업 부문은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삼락(三樂)농정'을 통한 FTA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 FTA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여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도내 농업주체들의 거버넌스, 산·학·관·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FTA로 인한 지역별·품목별 영향 및 대응에 대한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 수출지원 및 글로벌 마케팅 확대
 -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스템의 확보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수출금융 지원 강화
- '전북FTA활용지원센터'의 역할강화와 농축산분야 FTA 지원 전문기관 설립
 - FTA를 적극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북 FTA 활용지원센터'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농축산분야의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상시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지원기관 설립 필요

1) 전라북도 조사는 2012년 10.10~17일 전북 226개 기업 대상, 중국조사는 2012년 7.19.~7.31일 중국 502 기업 대상(KOTRA 중국 사업단에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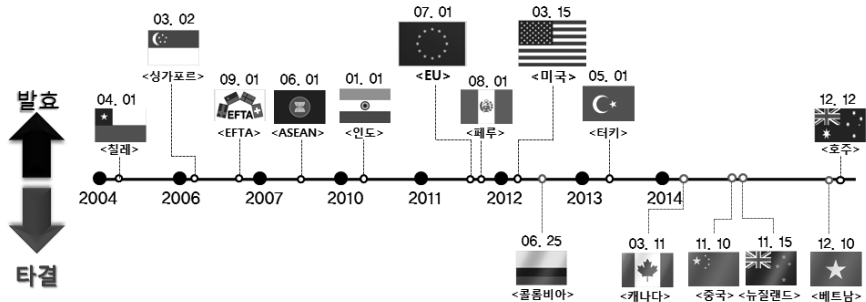
01 들어가며

- '14년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이 큰 이슈가 된 한 해였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개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음
- '14년 3월 11일에 캐나다와 FTA를 타결, '14년 11월 10일에 전라북도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한중 FTA를 타결, 11월 15일에 뉴질랜드와 FTA 타결, 그리고 12월 10일에 한-베트남 FTA가 타결되어 14년은 FTA가 주요 이슈로 등장
- 이와 더불어 2013년 12월에 타결된 한-호주 FTA가 '14년 12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방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킴
- FTA 체결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FTA를 체결했어야하나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여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됨
- '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는 보도에 전라북도 농민들은 농도인 전북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섬
- 한중 FTA가 농업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TA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FTA를 체결했어야 하나 정치/경제적 이유로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함
- 한중 FTA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간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국의 민감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여 FTA에 대한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함
- 향후, 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체결된 협상이 발효될 것이고, 또한 발효된 FTA의 효과가 본격화 될 전망이므로 이 시점에서 체결된 FTA의 영향력 분석 보다는 FTA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었고 한·중 FTA도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되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 될 전망
- 기존 정책이 소극적인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FTA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상황에서 다른 이면을 볼 필요성 대두
-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변화 필요
- 이와 더불어 FTA의 근본 목적인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02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1) FTA 체결 현황

- '14년 12월 10일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14년에만 4개국과 FTA를 타결
- '14년 들어와서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여 15개국과 FTA를 체결함('14년 12월 기준 10개 발효, 5개 타결)



<그림 1>
우리나라 FTA 타결 및 발효

2) 향후 FTA 체결 전망

- 양자간 협상을 통한 FTA 체결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는 다자간무역협정의 진전이 부진, FTA 체결이 진전됨에 따라 소외된 국가들의 FTA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
 - FTA의 확산은 다자간무역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 기초)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양자간 협력으로 극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
 - FTA 체결 국가의 증가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무역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FTA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FTA 정책을 적극적 추진(Band Wagon Effect)
-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서 FTA의 체결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13년에 1개, 14년에 4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FTA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간 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유럽 중국과 협상의 타결 또는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FTA로 인한 시장개방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FTA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표 1〉
우리나라의 FTA추진
예정국가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가
협상진행 (3건)	인도네시아, 한·중·일, RCEP
협상재개여건조성 (3건)	일본, 멕시코, GCC(6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중미(5개국), 말레이시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자료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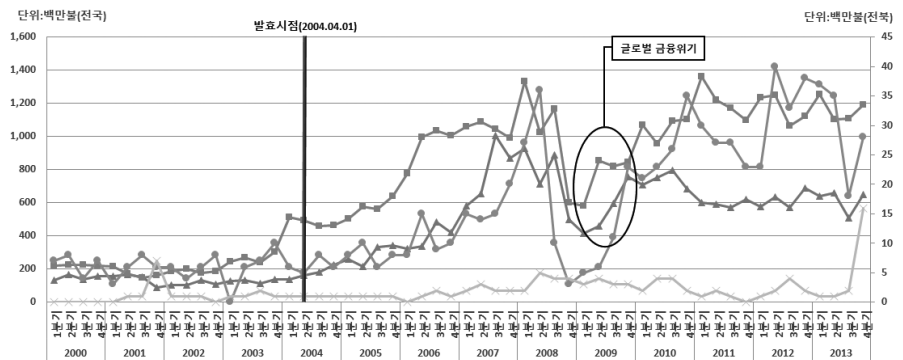
03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그림 2〉
한·칠레 수출입 변화

1) 한-칠레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칠레 FTA는 전북의 무역수지에 긍정적 영향
 - FTA 발효 후 전국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 수출 또한 시차를 두고 증가함
 - FTA 발효 이후 전북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북 수입은 큰 변동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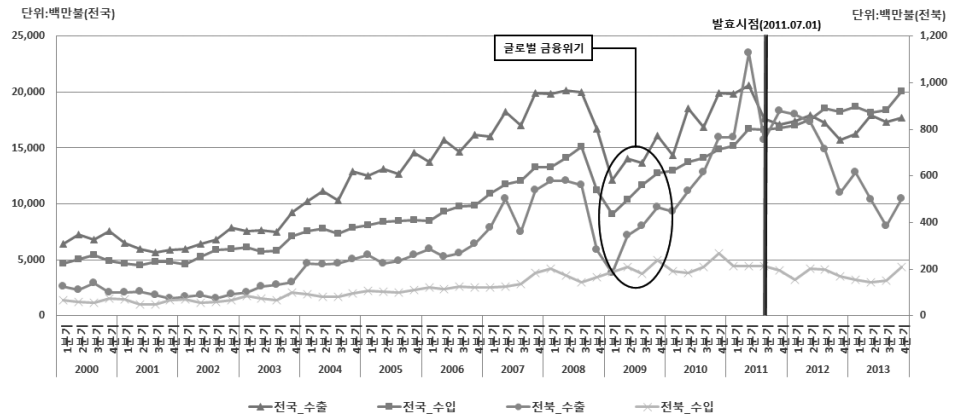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정리
한-칠레 수출입 변화

2) 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EU FTA는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산업구조의 특성과 경기의 영향으로 인함

- 한-EU FTA 발효시점 이후 전국 수입은 지속적 증가세, 수출은 횡보
- FTA 발효 이후 전북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수입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 전북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럽경기의 둔화와 맞물려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구조조정으로 인함

〈그림 3〉
한·EU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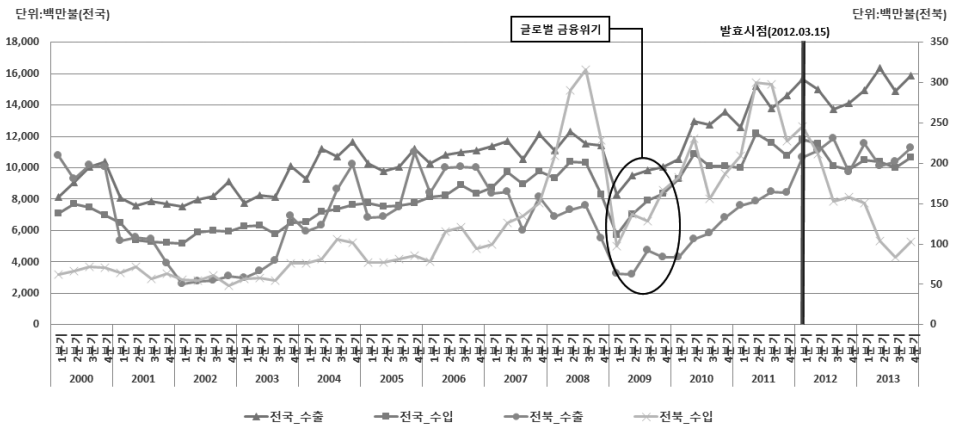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정리

3)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역의 증대보다는 수입의 감소가 주원인임

- 한-미 FTA 발효시점 이후 전국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미 FTA 발효시점 이후 전북의 수출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

〈그림 4〉
한·미국 수출입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정리

04

FTA에 대한 인식

4) 기존 발효된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3대 FTA(한-칠레 FTA, 한-EU, 한-미 FTA)를 통해 본 거시적 측면에서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FTA 발효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경기에 더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칠레 FTA와 같이 오래전에 발효된 FTA를 볼 때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도 개선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한-EU나 한-미 FTA는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 수출입에 미치는 것은 FTA 발효보다는 산업구조 및 경기에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한-EU나 한-미 FTA가 발효가 되었으나 주력산업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어 추가적인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작은 것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FTA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FTA로 인한 수출입 효과에서 FTA의 활용방안으로 전환 필요
 - 기존 연구가 FTA 발효로 인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에 따라 산업별 득실을 따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이러한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임

1)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인식 차이

- FTA가 타결되면 양국에서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데 산업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는 긍정적 평가를, 열위에 있는 국가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FTA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는 개방의 폭을 넓히려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개방의 폭을 좁히려는 경향이 있음
 - FTA는 상호이익을 위해 체결을 하나 경쟁력 우위에 있는 국가의 이익점유가 높은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한·중 FTA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 결과²⁾ 중국기업이 전북기업에 비해 한·중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에 대해 중국기업들은 23.1%가 매우찬성, 42.2%가 찬성, 25.9%가 보통, 8.8%가 반대로 나타남
 - 전북기업들의 한중 FTA 체결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영향 없음이 49.3%(111개사), 긍정적이 33.8%(76개사), 그리고 부정적이 16.9%(38개사) 이었음

2) 전라북도 조사는 2012년 10.10~17일 전북 226개 기업 대상, 중국조사는 2012년 7.19.~7.31일 중국 502 기업 대상(KOTRA 중국 사업단에서 실시)

〈표 2〉
전라북도 기업과
중국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차이

내용	전라북도	중국
FTA 체결 영향 및 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 없음 : 49.3% 긍정적 : 33.8% 부정적 :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찬성(23.1%), 찬성(42.2%) 보통 : 25.9% 반대 : 8.8%
FTA 지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 : 66.7%(1위) 원/부자재 가격 인하효과 : 17.6%(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기업협력 확대 : 28.4%(1위)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 22.7%(2위) 한국제품 수입가격 인하 : 18.2%(3위)

*자료: 전라북도 조사는 2012년 10.10~17일 전북 226개 기업 대상, 중국조사는 2012년 7.19~7.31일 중국 502 기업 대상(KOTRA 중국 사업단에서 실시)

2) 한·중국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영향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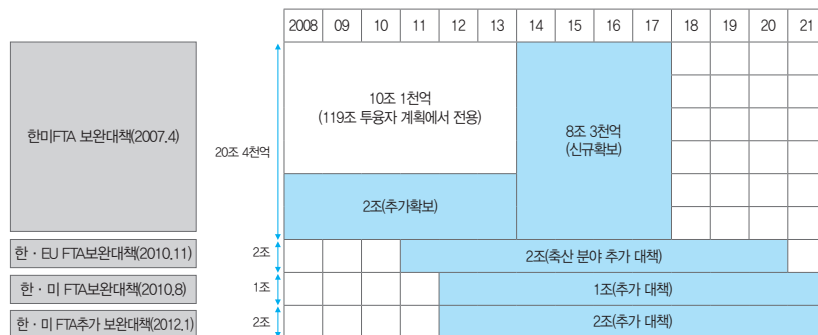
- 중국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음
 - 한·중 FTA를 지지하는 기업인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 중국기업은 1위가 '한중기업협력확대' (28.4%), 2위가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22.7%), 3위가 '한국제품 수입가격 인하' (18.2%)이었음
 - 전북기업은 1위가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 (66.7%), 2위가 '한국 수입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인하효과' (17.6%) 등이었음
 - 한·중 FTA에 대해 전북기업 보다는 중국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05

우리나라의 국내 FTA 정책

1) FTA에 대한 수세적 입장

- 정부의 FTA에 대한 국내정책 중 농수산업은 보완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함
 - 직접적 피해보전의 강화를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폐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해 친환경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체계 구축,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업시설의 현대화, 핵심인프라 구축, 유통체계 개선, 우수품종육성 및 농업기술 확보를 추진
 - 한미 FTA 대책으로만 25조4천억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과 같은 품목별 경쟁력 사업에 7조509억원, 농업경영체등록제, 경영이양직불 등을 통한 한국농수산업 체질개선에 12조7,415억원이 그리고 단기적 피해보전을 위해 1조2,965억원이 투자될 계획. FTA 정책 대부분이 피해를 보완하는 정책이며 한미 FTA의 적극적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



자료: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main.jsp>

〈그림 6〉
한-미 FTA 보완을
위한 예산

06

FTA에 대한 전라북도가 가야 할 정책방향

2) 한-미 FTA 보완을 위한 예산

- 전북도의 농업분야는 농축수산물품국의 FTA 대응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전북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 FTA 대응팀을 만들었으며 팀장과 4인(전문위원 1인 포함)이 농업분야 FTA 대책 추진
 -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상대국의 경제산업에 대한 분석, 기업들의 수요분석과 이에 따른 R&D 투자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적 구성면에서 한계를 기질 수 밖에 없음
- 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정보제공, 융자상담지원 등을 통한 구조고도화를 지원
 -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포털 운영,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간접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도 농업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대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진출유망품목 신규전시회의 확대, 정부조달 상담회 개최 등의 지원정책이 있으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
 -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 FTA 활용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진행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4명의 인력(관세사 1명 파견)이 업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3) FTA 본질에 대한 이해 필요

- FTA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양국의 경제시스템 효율화에 있음
 - FTA의 근본 목적은 양국간 수출입 증대 보다는 상호국가의 비관세장벽의 완화,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 증진에 있어야 함
 - 그러나, 우리는 FTA를 상품교역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FTA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함
- FTA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되면 FTA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FTA 정책이 상대방 국가의 이해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양국간 협력할 분야 및 방법이 많아질 것이나 상대방 국가를 경쟁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삼으면 FTA효과를 제한적으로 밖에 누릴 수 없음
 - FTA 정책이 양국 기업간 협력증진, 투자확대 등으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농업분야의 대책이 정부의 보조금 위주로 운영이 된다면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농업분야에서도 투자유치, 기업간 협력을 통한 농촌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1) FTA에 대한 대책에서 FTA의 활용으로 장기적인 정책의 기초 변화 필요

- 정부, 전라북도, 기업인 모두 FTA를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FTA의 가능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발효될 FTA에 대한 대응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임

- 중국기업이 FTA를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응답이 많은 부분이 '기업간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 으로 나타나 중국기업들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또한 FTA에 대해 적극적 대응으로 활용도를 제고하여 FTA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마련 필요

2) FTA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상과 전북경제시스템의 효율화의 명확한 구분 필요

- FTA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적극적 보상 필요
 - 전북은 가장 영향력이 큰 FTA 체결 4개국(한-미, 한-EU, 한-캐나다, 한-호주)과의 FTA로 인해 연간 1천2백억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발생하며, 이 중 약 85%인 1천억원이 축산분야에서 발생예상
 - 현재 FTA에 대응한 품목중심의 대응책은 많은 경우 개별적, 임시방편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도 차원에서 축산부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 필요
 - 또한, FTA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중소농가에 대해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정별 개별 시행하던 국내 대책을 통합하여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 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FTA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제시스템의 효율화 정책의 발굴 필요
 - FTA 대책이 정부주도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의 하락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으로 FTA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 농축산업 분야에서 국가에서 직접적 피해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구축과 같은 소극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농업 시스템의 효율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균형 달성 가능
 - 제조업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외국기관, 외국기업과의 협력프로젝트의 발굴 및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3) FTA 체결국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FTA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체결국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
 - 지역별로 FTA 체결국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력 가능한 기업의 발굴, 투자 유치, 경제시스템의 개선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문가가 필수적이며 'FTA 활용지원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와 같은 기관이 FTA 활용정책을 구현하는데 최고의 선택일 수 있으며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보강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4) '삼락(三樂)농정'을 통한 FTA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업경쟁력 제고는 농업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함. 이를 위해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도내 농업주체들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산·학·관·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FTA로 인한 지역별·품목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 산·학·관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농업 생산과 연구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5) 맞춤형 농축산업 구조 개선

- 전라북도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우선 개별 농가별로
 -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실시
 - 전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되, 은퇴·경작포기·파산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유도
 -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보상지원과 함께 생산 및 사육 제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
-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의 대부분은 축산업분야에서 발생하므로 축산업 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축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6) 농식품 수출 확대

-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스템 확보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농축산 원재료의 가공을 통해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공격적인 수출전략 시행
 - 수출농업단지의 규모화·전문화를 도모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컨설팅실시, 전담 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서비스제공, 물류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후관리 지원 강화
 - 산지의 예방·선별·포장·수송 등 수출물류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연계하여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수출금융 지원 강화
 -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농산물박람회나 식품전시회 등의 참가방식을 개선하여 전라북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강화
 -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인 농산물 수출보험, 관세환급, 자조금 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 FTA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사항 50%가 'FTA 전문지원인력 부족'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을 지적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FTA 활용을 위해 FTA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상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 개설 필요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11. 10) "한중 FTA 협상"실질적 타결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선언" 이강진, 2012, "한중 FTA 선제적 대응방안-전라북도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